



www.eulji.ac.kr

을지대학보

THE EULJI UNIVERSITY TIMES

제301호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1967년 12월 1일 창간

발행인 홍성희 주간 오창석
편집장 신희진 디자인 명진C&P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26
FAX 031-740-7328 E-mail hakbo@eulji.ac.kr

학보사 인스타그램



학보사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보 제301호 CONTENTS

- 01 1면보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2024 을지축전'
- 04 사회문화 탈서울 현상 KBO 리그
- 09 2024 을지축전
- 10 인터뷰 입학관리처장 김명철 교수
- 12 을지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 모금 캠페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2024 을지축전'

지난 10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진행된 '2024 을지 축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성남과 의정부 두 캠퍼스에서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다채롭고 특색 있는 부스와 행사들이 펼쳐져 축제를 더욱 빛냈다.

이번 축전에서는 ▲본부&학교부스 ▲학생부스 ▲푸드 트럭 ▲포토존 ▲야식당 ▲지역부스 ▲플리마켓 ▲동아리공연 ▲복면가왕 ▲음악의신 ▲성남시 지역공연 ▲아티스트 무대 ▲DJ 공연 ▲을지로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축제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화합을 더욱 깊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 지역민과 성남을 연고로 한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거

듭났다.

특히 지역 청소년과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성남수정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플리마켓도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홍성희 총장은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을지대학교는 축제의 규모에 맞춰 안전요원 배치 및 차량 통제를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했으며, 참여한 학우들과 지역 주민들은 질서를 잘 유지하며 활기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 응급구조학과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을지대학교

도심 속 야외 음악축제, 8일 을지대서 성황리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야외 음악축제 '2024 피크닉콘서트'가 지난 10월 8일(화) 오후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상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2024 피크닉콘서트'는 시민이 무료로 야외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날 공연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와 시민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록그룹 '부활'과 '전인권밴드'가 오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은 "시민을 위한 멋진 음악축제 '피크닉콘서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을지대학교에서 개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학생처

의정부캠퍼스 한마음봉사단,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힐링스페이스" 개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9월 10일(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을지대학교 힐링스페이스" 전공 연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4개 학과와 학생봉사단 빛길 등 교직원 10명, 학생 70여 명이 참여하여 평소 학업을 통해 익힌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특화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방식

으로 진행됐다.

각 부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치매예방 방법 및 만성질환 관리 ▲스트레칭 운동 및 재활트레이닝 지도 ▲금주캠페인 ▲우울스트레스 검사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한승진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장은 "을지대학교는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으로 의료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전공과 연계한 '힐링스페이스'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

을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전문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윤리강령 선서식 개최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는 지난 8월 22일(목), 성남캠퍼스 본관 408호(Telepresence Room)에서 '입학사정관 전문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 34명의 입학사정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김정래 입학사정관실장이 2025학년도 을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기준 및 학생부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입학사정관들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조별 토의를 진행하며, 평가 항목과 평가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 각 학과/학부단위별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반영한 평가요소를 도출했다.

최근 입시 공정성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으로서 '인간사랑 생명존중'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보건의료인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서식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철 입학관리처장은 "참된 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첨단학부, 자연계열학부 및 인문사회계열학부제 도입에 따른 학부별 및 전공별 평가요소에 중점사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체계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대한임상병리사 학술대회서 수상 영예



▲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을 수상한 성남캠퍼스 학생팀(왼쪽), 학술상을 수상한 의정부캠퍼스 학생팀(오른쪽)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제62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국제학생포럼'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과 학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난 8월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관하고 전국 54개 대학의 임상병리학과가 참여한 이 포럼에서 을지대 성남캠퍼스 임상병리학과 이재왕 지도교수와 최원우(4학년)·안재윤·양서영·이서정·조민건(3학년) 학생팀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을 받았다.

또한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임상병리학과 김인식 지도교수와 김서현·도영환·유송주·전주현·조혜령(1학년) 학생팀이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은 각각 성남캠퍼스 학생팀-정밀 의료 시대에 임상병리사의 위치: 생물정보학을 향한 한 걸음(Medical Technologists' position in the era of precision medicine: a step toward bioinformatics), 의정부캠퍼스 학생팀-교육 제도의 개편: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법을 중심으로(Reform of education system: Training bio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in the era of AI and Big data)라는 주제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왕·김인식 지도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임상병리사도 미래에 맞는 역할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라며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전문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계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2024대학생 건전 문화 조성 및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개최

미래융합대학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대학생 건전 문화 조성 및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을지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0월 31일(목)까지 '대학생의 건전한 경제활동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 및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주제로 시·각디자인 부문(슬로건, 영상)과 프로그램 기획안 개발 부문 등 다양한 작품을 접수 받는다.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전공 홈페이지 참고(QR링크)



미래융합대학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진예주 학생, 주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



▲ 진예주 학생(왼쪽), 박주용 교수(오른쪽)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4학년 진예주 학생이 최근 SCOPUS 등재지인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에 단독 1저자로 'Sex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Korean Adolescents (한국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위험 요인에서의 성별 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본 연구에서 진예주 학생을 포함한 연구진은 제18차 한국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51,845명의 중고등학생 자료를 분석하여 남녀 모두 학업 성적, 경제적 상태, 흡연, 음주, 성경험과 같은 요인들이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흡연과 음주가 GAD 위험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 남학생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 GAD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범불안장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지도한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박주용 교수는 "학부생이 단독 1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진예주 학생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예주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을지대학교-차의과학대학교 MOU 체결



지난 6월 5일(수)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미래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차의과학대학교와 을지대학교가 바이오-제약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복 부총장겸 대학원장과 시니어헬스케어학과 김인식 교수, 식품영양학과 광민규 교수가 참석하였다.

차의과학대학교는 의생명 연구와 의과학 교육을 연계하여 의료산업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의 교수, 병원의 임상교수, 기업과 연구소의 R&D 책임자들이 연구와 사업개발에서 협력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차의과학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 대해 김관복 부총장겸 대학원장은 “양 대학이 협력하여 수행한 정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뇌한국2사업 유치, 공동학위과정 설치 및 운영,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협력을 통해 바이오-제약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양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2024 ‘환자안전 캠페인’ 개최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9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환자 및 보호자, 직원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해서 더 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환자 안전의 날(9월 17일)에 맞춰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대한환자안전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공동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진단 향상 캠페인(진료지원부) ▲환자 안전 Speak up(환자안전 다짐 퍼즐 부착) ▲환자안전 퀴즈 이벤트 ▲수술실 타임아웃 캠페인 ▲출근길 직원 대상 환자안전 캠페인 ▲리더십 환자안전 라운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환자 안전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태근 원장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은 전 직원이 함께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각심을 잃지 않고 환자 안전 활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전기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외국인학생 모집

모집단위

- 일반대학원(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보건복지대학원(석사), 임상간호대학원(석사)

원서접수 : 2024. 10. 21(월) ~ 2024. 11. 8(금) 18:00까지

구술면접 : 2024. 11. 23(토) 10:00

합격자발표 : 2024. 11. 29(금) 예정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노원 을지대병원, 공동 소화기내과 연수강좌 성료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위장관 질환과 간체담도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연수강좌가 진행됐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의정부·노원 을지대학교병원 공동으로 ‘2024년 소화기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2층 일현홀에서 열린 연수강좌에

는 80여 명의 개원의와 의정부·노원 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박영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일환 교수(의정부)-내과의사가 알아야 할 위염 치료 ▲박광범 교수(노원)-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의 최신 지견 ▲김원중 교수(의정부)-과민대장증후군의 최적의 치료법 알아보기 ▲성결 교수(노원)-고위험군 환자에서 안전하게 내시경하기 등 4편의 강좌를 진행했다.

손병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교수와 안상봉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교수가 공동 좌장으로 참여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오주현 교수(노원)-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변화 ▲김수형 교수(의정부)-간 기능 검사 이상의 해석 ▲임대현 교수(의정부)-흔히 접하는 담낭질환에 대한 접근법 ▲정주원 교수(노원)-췌장암이 진단되는 다양한 케이스 등 강좌가 이어졌다.

치위생학과

치위생학과, 박보영 동문(07학번), 청주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박보영 동문(07학번)이 2024년 9월자로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었다.

박보영 동문은 “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님들 덕분에 학부 4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으며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을지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장 황영선 교수는 “박보영 동문의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전임교수 임용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박보영 동문의 열정과 노력이 교육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축하의 소식을 전했다.

동문 소식

높은 주거비와 경쟁을 피해 향한 새로운 길?

탈서울 현상

황하윤 학생기자 hyunn0429@naver.com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층의 탈서울 현상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그들의 가치관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다. 많은 청년이 지방으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청년들을 이동시켰나

청년 세대의 탈서울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 번째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의 집값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주거비 외에도 생활비와 각종 경쟁적 요소가 겹치면서 도시에서 삶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에 비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이며, 일부 지자체는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입 및 임대 관련 혜택을 주는 등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 요인은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여유로운 일상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점도 청년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요소이다.

품귀 현상?

품귀 현상은 물품이나 상품 따위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최근 8호선 별내선 개통으로 구리역세권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19일 기준)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이 강남 부근 통근 시간이 단축된 구리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경기, 인천 방면으로 탈서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서울 외부 지역에서는 탈서울 트렌드에 맞춰 강원도에서 청년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경상북도 같은 경우 경북 청년 행복주택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사업과 월세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이어지는 행렬

사람뿐 아니라 기업들도 탈서울 현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5.4%로, 4.7%의 경기도에 비해 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IT와 디지털콘텐츠 업종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비싼 서울 사무실을 축소하는 분위기는 해석을 해석이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 속 경기권역에서 새로 분양하는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하이엔드 워크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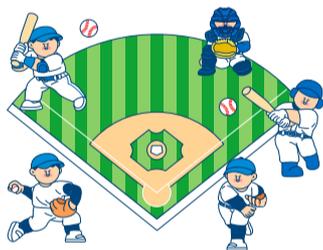
미래를 위한 과제

앞서 알아보았듯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탈서울 현상에 동참하면서 지방의 경제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를 장기적 성장 동력으로 삼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이 자생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새로운 기회와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상 최초 '천만 관중'

KBO리그

최현민 학생기자 hmchoi0515@naver.com



올해 KBO리그가 출범 43년 만에 최초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이는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인 약 840만 명(2017년)을 한참 뛰어넘은 수치다. 시즌 시작 전만 하더라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부진, 일부 코치진과 선수들의 일탈, 모바일 생중계 유료화 등 여러 악재가 있었던 만큼, 야구의 인기 저하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KBO가 야구장으로 관중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유일의 K-응원문화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부산의 사직야구장을 가리켜 "세계 최대의 노래방"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선수 각자의 등장곡에 맞춰 이름을 연호하고, 다양한 응원가를 함께 부르는 팬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이는 사직야구장만의 문화가 아니라, KBO리그 전체의 응원문화다. 이러한 문화를 과거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정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숏폼(short-form) 형태로 널리 공유되면서 젊은 팬들, 특히 여성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또한, 과거의 다소 과격했던 응원 방식은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 등으로 대체됐고, 상대를 비난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은 구단 차원에서 게시를 일절 금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야구장에 처음 온 관중도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왔다.

팬들 지갑 열게 만든 '콜라보' 상품

귀여운 인기 캐릭터가 새겨진 굿즈(Goods) 또한 신규 팬들의 유입에 큰 공을 세웠다. 올해 구단들은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LG 트윈스는 웹툰 '마루는 강쥐', 두산 베어스

는 이모티콘 캐릭터 '망그러진 꿈'과 각각 협업했다. 이들 캐릭터는 직접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하기도 했다. 롯데 자이언츠 또한 '짱구', '에스더버니' 등 팬들의 취향을 저격한 콜라보 상품들을 여럿 내놨는데, 뜨거운 인기로 일부 상품은 금세 동났다. 야구에는 관심이 없던 이들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겨진 유니폼이라면 구매를 고려하게 되고, 유니폼을 사면 야구장에도 가고 싶어 마련이다. 이처럼 구단의 활발한 협업 활동이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단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리그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야구장은 지루해'도 이제는 옛말

과거 야구는 지루한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축구와 농구 등의 평균 경기 시간이 2시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3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야구는 대다수가 지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야구계는 지나치게 긴 경기 시간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선 '피치컴(Pitchcom)'을 도입함으로써 선수들 간 사인 교환 시간이 절약되어 경기 진행이 크게 빨라졌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ABS(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역시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선수나 코치의 볼 판정 관련 항의 등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 내년부터는 '피치 클락(Pitch Clock)' 정식 도입으로, 제한 시간 내 투구는 물론, 주자 견제 횟수도 제한되는 만큼 경기 시간도 한 번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빨라진 경기 진행, 다양한 야구장 먹거리와 함께라면 이제는 야구장도 마냥 지루한 공간은 아니다.

방심하면 또 떠난다

올해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천만 관중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야구장에도 암흑기는 있었다. 한적한 관중석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저씨, 무관중 경기를 연상케 하는 텅 빈 관중석에 누워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으나 과거에는 실존했던 야구장의 모습이다. 지금의 인기로 취해있지만 하다가는 머지않아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될지 모른다.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흥행의 요인을 잘 분석하고 또 보완해야 할 것이다.

생명 지킴이 화재 교육

김지현 학생기자 kyn3638@naver.com



지난 8월,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시민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건은 화재 대비와 기본적인 화재 지식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학창 시절에 들었던 화재 교육이 기억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화재 관련 대피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화재 대피 방법을 다루며, 부족했던 화재 안전 교육을 다시 채워나가야 할 때이다.

위험 속에서 펼쳐지는 날개

이번 화재 사건에서 8층에서 2명이 외부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에어매트는 화재 혹은 자살 등으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상에 설치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이다. 풍선을 상상하면 에어매트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다. 매트는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층은 충돌하는 순간 공기가 배풍창으로 빠져나가면서 낙하 속도를 줄여 사람에게 가게 될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하부층은 떨어진 사람이 지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단단히 받쳐주는 역할을 해 추락자의 부상을 줄인다. 에어매트는 최고 15층 높이, 체중 150kg의 무게까지 탈출을 지원한다. 뛰어내릴 때는 머리를 손으로 감싼 뒤 엉덩이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려야 한다. 이때 한 번에 한 사람씩, 반드시 앞사람과 20초 간격을 두고 에어매트 정중앙에 뛰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비상구

해당 호텔의 모든 객실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비상구가 눈앞에 있었지만 문을 열지 못한 것처럼,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부재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완강기는 고층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이다. 2005년 강화된 소방법에 따라 해당 연도 이후부터 승인된 모든 건축물

은 3~10층까지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강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소방용 완강기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 수강 경험 설문에 72.6%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39.5%는 완강기 관련 내용이 없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완강기 지지대에 고리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던진다. 벨트를 가슴에 맞게 조인 뒤 창틀에 올라 몸을 벽을 향해 돌리고, 'W' 형태로 만들어 안전하게 벽을 짚으며 내려가야 한다.

나를 지키는 법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 방법과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연기가 발생했을 경우,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상 비상구와 대피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대피 요령을 잊지 말고, 지속적인 화재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상 상황 대응 및 화재 대피 훈련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비록 화재 위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평소 교육과 실제 훈련을 통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알고, 예방하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을 가진 가을이 시작되면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에어매트, 완강기 같은 생명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실행되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실전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화재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자 부탁드립니다 콜 포비아

조화란 학생기자 yulgog03@naver.com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차는 느낌을 경험한 적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콜 포비아(Call Phobia)'일 수 있다. '콜 포비아'는 전화(Call)와 공포증(Phobia)의 합성어로, 전화를 기피하는 것뿐 아니라 전화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필요 이상의 긴장과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다. 가수 아이유와 안무가 하니제이 등 여러 유명인도 겪고 있는 '콜 포비아'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콜 포비아, 왜 겪는 걸까?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천국이 MZ세대 1,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6%, 즉 3명 중 1명이 콜 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글자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업이나 업무 등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교류조차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활동들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콜 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대면에서 글자로 소통할 때는 문자를 보내기 전 충분히 생각하고 답장할 수 있지만, 대면 혹은 전화로 이뤄지는 소통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대화 사이 침묵에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콜 포비아를 겪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

콜 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

고 있다. 전화 한 번이면 해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못해 제시간에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직원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전화는 거래처와의 소통, 고객 응대 시에도 필요한 업무상 중요한 소통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겨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 콜 포비아는 예약 후 불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약 고객이 취소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아 업체는 준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연락도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아 면접자를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극복을 위한 길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콜 포비아 극복을 위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 친한 친구 등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연습하면서 전화를 걸고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공포스럽고 두렵다고 피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콜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콜 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 스피치 과외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데 상사나 동료에게 말하는 예절부터 스몰토크까지 다양한 연습을 통해 전화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전화 지침을 가르치는 연수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콜 포비아를 겪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화하는 과정

식당 예약, 배달 등 전화 통화가 필요했던 부분을 애플리케이션이 채워주다 보니 비대면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콜 포비아의 나쁜 부분만 보고 무작정 욕할 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나의 행동으로 불편을 겪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2023 EULJI UNIVERSITY FESTIVAL

2024 을지축전



성남캠퍼스



학보사 홍보부스 운영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고 간식받기



진로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취창업센터 부스



활기찬 체험부스



축제 속 을랑이 포토존 찾기



최고의 음악인을 뽑는 레크리에이션



성남수정경찰서의 방문



총학생회 Enough의 단체사진



학생 부스에 방문하신 총장님



홍성희 총장님의 축전 격려금 전달



가장 붐볐던 학연의 밤 주점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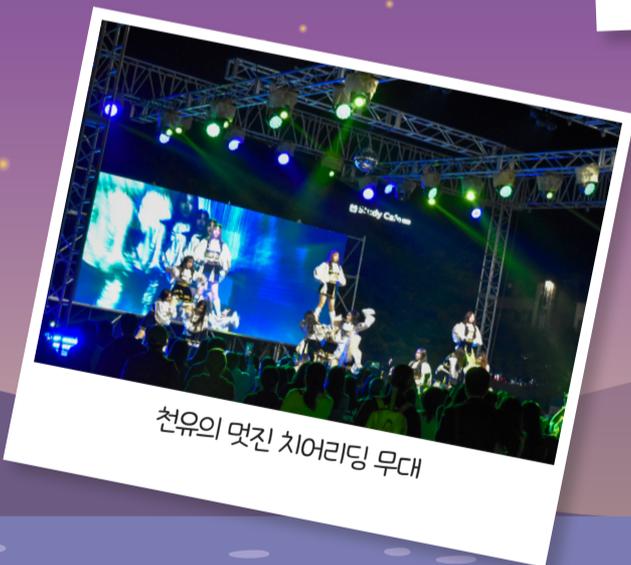
불타올랐던 밴드 무대



가왕은 누구? 복면가왕 무대



북적북적한 성남캠 주점



천유의 멋진 치어리딩 무대



시끌벅적했던 주점의 밤



최강 풍물패, 새뉘소리의 공연



각기 다른 색깔의 댄스팀 무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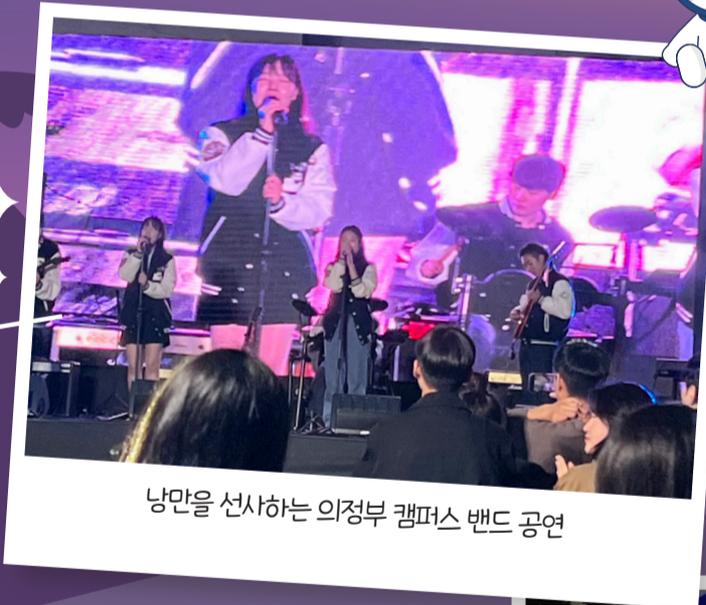
의정부캠퍼스



멋진 노래로 장기를 뽐내는 학우



다양한 안주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노점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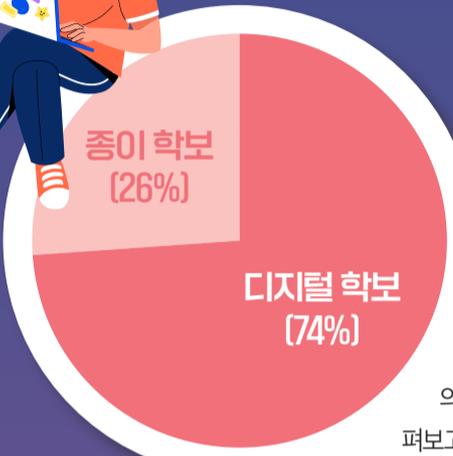
낭만을 선사하는 의정부 캠퍼스 밴드 공연



타로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부스



디지털 학보 VS 종이 학보



학보는 대학 생활에 있어 오랫동안 교내외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종이 학보도 변화의 갈림길에 설 때가 왔다. 을지대학교 학보의 디지털화 역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디지털화를 놓고 학우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학보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2024 을지축전 이틀 간 총 481명의 학우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다수의 학우가 학보의 디지털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 신문을 선호하는 학우는 전체 응답자의 74%(358명)로, 디지털 매체가 주는 편리함과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종이 인쇄에 비해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종이신문을 선호한 학우는 26%(123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문의 감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며, 손에 들고 읽을 때의 집중과 정서적 만족감은 디지털 매체가 대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 종이신문일 때는 교내에서 편리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각 관마다 배치하는 종이 학보가 없어지면 학보를 접할 수 있는 학우가 적어질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기술과 전통 사이에서 학우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결정 내리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디지털화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종이신문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우들과 학보를 읽는 독자들도 무시할 수 없다.

종이신문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기도 한다. 디지털화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고, 학보의 상징적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아카이빙 측면에서 종이 신문은 물리적으로 남는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 기록은 유지와 보호에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보의 디지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변화일지도 모른다.

비록 디지털화에 따르는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학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나 독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희진 학생기자 heejin8885@naver.com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장
김명철 교수

을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

을지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부서는 어디일까? 바로 입학처이다. 입학 전에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부서이지만 입학 후, 재학생에게 가장 생소한 부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재학생들에게 입학처라는 부서를 소개해주고자 입학관리처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민서 학생기자 | 2alstj@naver.com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이며, 현재 입학관리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명철 교수입니다.

Q. 을지대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을지대학교 입학전형은 모집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입학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부교과전형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고교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합니다. 모집학부/과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전형으로는 지역균형전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이는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같은 고교 학교 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입학전형이지요. 우리 대학에서는 EU 자기추천, EU 미래인재 전형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에 신설된 논술교사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논술전형은 약술형 논술로 중요한 요점과 수식을 중심으로 나열하는 개조식 답변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Q. 입학관리처라는 부서가 재학생들에게는 생소할 것 같은데요, 입학관리처는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입학관리처는 앞서 말씀드린 입학전형을 관리하며 공정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전형 개발을 통하여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입시 홍보 및 상담 지원, 입학전형 설계, 입학전형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입학관리처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입학관리처의 주요 업무는 바로 좋은 인재를 보다 많이 선발하는 것인데요,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신입생 충원율 100%를 기록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던 같습니다.

Q. 24년도 신입생들에게 '학부제'가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학부제는 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다양한 전공 분야를 수강하며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융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다변화 시대에 필요한 다전공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를 확립했다 할 수 있습니다.

Q.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장으로 계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물리치료학과 교수의 역할과 함께, 을지대학교 전체로 보면 더 중요한 처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심적인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애교심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을지대학교 입학관리처장으로 계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모집정원 수에 맞게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게 연구 목표가 되겠죠! 2025학년도도 신입생 충원율 100%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학보사

인스타그램&카카오톡 5차 인증샷 이벤트



'제301호 을지대학보'를 읽고 가장 맘에 드는 기사를 골라 한줄평과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 10. 28(월) ~ 2024. 12. 2(월)
당첨자 발표	2024. 12. 9(월) 예정, 학보사 SNS 공지 및 개별연락
당첨인원	20명
이벤트 상품	문화상품권 1만원
문의	031-740-7126 /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 이벤트 참여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및 학보사 SNS의 링크에 있는 학보 혹은 교내에 비치된 종이 학보를 열람한다.
 - ② 학보사 **인스타그램(@eulji_press)**을 검색하고 팔로우한다.
 - ③ 학보에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찍거나 캡처한다.
 - ④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스토리로 학보사 인스타그램 태그 및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한다.

- 유의사항**
- ① 인스타그램 비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지대학교 학보사)** 친구추가 후 'SNS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해당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② 당첨자 발표일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비공개 계정은 업로드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NS가 아이들을 해치고 있다

미성년자 SNS 제재

2024년 9월, 메타는 18세 미만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미성년자 사용의 비공개 계정으로서의 전환 및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사람들은 생각이 바로잡히지 않은 미성

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하는 반면,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미성년자의 SNS 제재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맹지환 학생기자 chungchungang@naver.com

반대 **김태경 학생기자:** 나는 미성년자 SNS 제재에 반대해. 최근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SNS 제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단순 제재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피해자 책임 전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해. SNS에서 일어난 이러한 범죄의 근원은 범죄자들의 악의적 행동과 기술 악용에 있지, 단지 SN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죄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고 SNS 자체를 제재하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성년자나 청소년은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경계심이 성인보다 낮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적기에 그만큼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워.

찬성 **강주연 학생기자:**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된 SNS 환경은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도 위협당할 수 있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어.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당장 SNS를 통해 폭력·약·성적인 유해 콘텐츠가 노출돼도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익을 위해 이를 방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미성년자의 SN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봐.

찬성 **윤채연 학생기자:** 나도 은진이의 말에 동의해.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 비베크 머시는 “SNS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의 위험이 2배로 높다”라고 언급했어. 그래서 뉴욕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SNS의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이 통과됐어. 범죄와 우울증의 온상에 고스란히 노출된 미성년자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해.

반대 **박은서 학생기자:**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을 막기 위해 SNS 제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더군다나 SNS 제재 하나만으로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타인과의 비교를 청소년들이 바로 멈출 수 있을까? 비교 문화를 없애고 올바른 SNS를 만들어 가는 건 청소년이 아닌 성숙한 어른들과 미디어의 몫이야. 그것을 미성년자에게 전가하는 건 옳지 않아.

반대 **설지은 학생기자:** SNS에 유해한 콘텐츠가 있다는 점은 공감해. 하지만 SNS 자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람을 잇는 좋은 수단이야. 그리고 학생들에게 SNS는 단순한 일상 공유에 그치지 않아. 유용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걸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정보의 접근을 쉽게 만드는 역할도 해. 그렇기에 SNS 사용 자체를 제재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올바르게 사용하게 돕는 게 좋을 것 같아.

찬성 **최은진 학생기자:** 나는 그런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학생이 SNS 친구에게 사진이나 영상, 개인 정보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이 미

단순한 SNS의 사용이 문제가 아닌 그것을 악용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부터 사생활에 대한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학생기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최후에 미성년자가 SNS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SNS의 문젯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이러한 노출이 비단 미성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SNS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300호 소리엽서 당첨자

제300호 소리엽서 퀴즈

Q. 자외선은 에너지의 일종이며 태양광의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이 자외선(Ultraviolet, 이하 UV)은 UV-A, UV-B, UV-C 세 종류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자외선을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300호 소리엽서 퀴즈 정답

제300호 소리엽서 당첨자

간호학과(성남) 이승창, 간호학과(의정부) 주민석,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김정희, 물리치료학과 안정환, 물리치료학과 양유빈,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김태연, 의학과 임나영, 의학과 임제인, 의학과 윤희봉, 의학과 장세희

제301호 학우들의 소리엽서

저희 학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모두의 학보를 만들어보고자 소리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성의껏 작성하여 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Q1. 이번 호 기사 중 좋았거나 부족한 것은? (기사내용)
- Q2.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인물추천, 기사 등)

소리엽서

제301호 소리엽서 퀴즈

Q. 축구나 농구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경기 시간을 가진 야구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시간을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도입한 수많은 제도 중 내년부터 시행되어 제한 시간 내 투구하도록 유도하고 경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

학보 배부대에 있는 소리엽서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온라인 소리엽서 제출 방법

- ① 카카오톡 채널 '을지대학교 학보사' 검색 후 친구 추가하기
- ② '채팅하기' 클릭 후 하단바의 '301호 소리엽서 제출' 클릭
- ③ 채팅 메시지로 안내되는 '소리엽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정보 입력하기

학과(학부) _____ 학번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여러분은 을지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갈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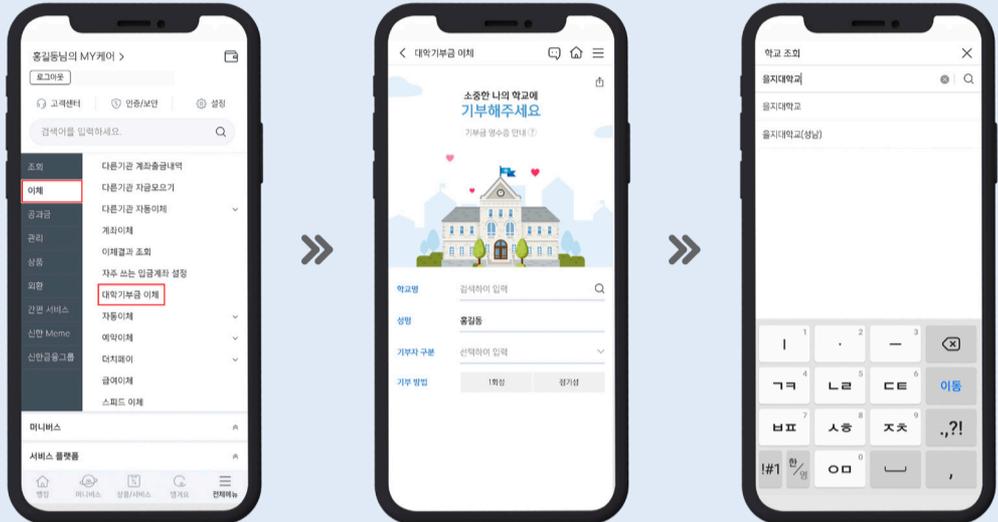
후원방법 01

QR 코드를 통한 신청서 작성



후원방법 02

앱 사용(신한은행 SOL 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메뉴 ➡ 이체 ➡ 대학기부금 이체

학교명 검색

- ① 발전기금: 을지대학교 선택
- ② 장학금: 을지대학교(성남) 선택

후원방법 03

지로통지서 후원(지원금액 자율)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동문 을지대학교의료원 할인 혜택 안내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을지대학교 재학생·동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을지대학교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재학생

구분		본인(%)	직계(%)	
접수비(진찰료)		100	-	
급여	외래	30	10	
	입원	행위별	30	10
		신포괄	15	5
비급여	상급병실료	30	10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20	10	
	제증명	20	10	
	종합검진	30	20	
	PET-CT	30	20	

을지대학교의료원 감액기준표 - 동문

구분		본인(%)	직계(%)	
급여	외래	15	10	
	입원	행위별	15	10
		신포괄	10	5
비급여	상급병실료	15	10	
	라식, 엑시머	10	10	
	MRI, SONO, CT 보철	10	10	
	제증명	10	10	
	종합검진	20	20	
	PET-CT	10	10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02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12